

봉사를 통해 체험하는 하느님의 사랑



인도 방갈로르에서 인도 종신서원 준비반 다섯 명과 합류한 후, 우리 인도네시아 종신서원 준비반 세 명은 국경을 넘어 선교 현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이 깊은 주변부 체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깊게 하고 시야를 넓히며 선교에 대한 투신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헬레나 수녀, 수마니 수녀, 완민 수녀가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와 뜻깊은 날들을 보내는 동안 마음도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부드럽고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 거주자들과 나눈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변화되었습니다. 노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듣는 듯했는데 믿음, 인내, 사랑, 희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고,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은 소중하고 연약한 생명의 선물을 상기시켰습니다. 가장 작은 감사의 표현조차 우리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분들 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셔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더 깊은 연민으로 섬기도록 초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루르의 스네할라야 병원에서 클라리사 수녀와 비자야 수녀는 자비의 수녀회 수녀들의 자비롭고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고, HIV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동 입양 센터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토록 다정하게 돌봄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손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으며, 가장 연약하고 종종 잊혀진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섬기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코틀렌고 수녀원에서는 특별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에 미나, 에드문다, 모니카 수녀의 마음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 겸손한 봉사를 통해 우리는 좋으신 하느님께서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현존을 만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단순한 방식으로 사랑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학교 갈 준비를 돕고, 방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랑의 행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들과 함께하며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데 보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인내와 함께함,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법을 부드럽게 배웠습니다.